



“1조를 향한 약진!”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지속성장하는 기업

# 일진전기주식회사

일진전기주식회사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전기인프라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불과 5년 전까지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대에서 △2004년 3900억원 △2006년 6785억원 △2007년 8250억원을 달성하고 2008년 매출액 1조를 향해 능동적으로 정진하고 있다.

1967년 설립된 일진전기는 일진그룹의 모기업으로서 비철금속산업을 시작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근간이 되는 전력, 통신, 재료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일진전기는 송배전용 전력기기, 차단기, 배전 자동화용 시스템, 고압/특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 동/광통신케이블, Ubiquitous Solution(RFID, SI), 재료(Cu wire, 전자재료), 환경(DPF), 조명(무전극램프) 등 폭넓은 산업분야에 진출하여 그 동안 국내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통신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지난 2000년 관계사인 일진전선과 2003년 (주)일진을 합병하여 전력케이블 및 통신케이블 분야를 흡수하고, 2007년에는 계열사인 일진중공업을 합병함으로써 국내 유일한 초고압 송배전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종합 중전기회사로 발전하였다. 일진전기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종합 중전기 메이커로 고객의 변화를 이해하고, 리드하는 Global leading company로 이순간에도 성장해

가고 있다.

또한, 2001년 이후 전력산업의 본고장인 서유럽 및 북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한 결과, 2006년 수출 1억불 달성에 이어, 2007년 수출 3억불 및 베트남 전력케이블 공장 인수 등 Global Company로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40%수준인 수출비중도 45%까지 늘릴 계획이다. 최근 최문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유럽/북미 지역 교체 수요와 중동 및 신흥국가 도시 개발확대에 딸 전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적으로는 전선 수출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중소형 발전 분야도 기대하고 있다.

일진전기는 올해 ‘사업고도화’, ‘세계화’, ‘기술고도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고도화를 위해선 회사가 ‘전기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이라 이름 붙인 ‘턴키 방식



케이블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턴키 방식이란 발전소 등을 건설할 때 기자재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복구 지원 성금으로 1억원을 충남도청에 기부함은 물론 120여명의 임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름오염방제작업에 참여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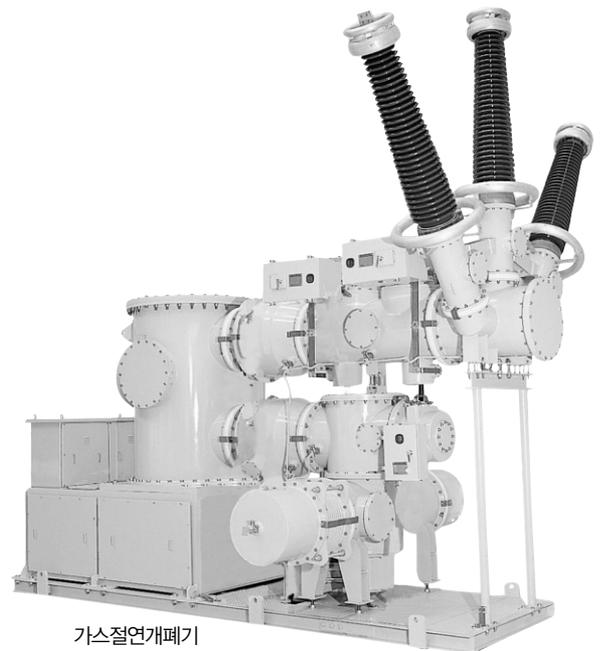
일진전기는 연령, 토익, 학점 등의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지원자들의 업무 분야에 대한 열정과 능력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른바 열린 채용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일진전기는 국가기간산업을 묵묵히 이끌고 가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R&D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

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사람이 곧 기업”이라는 신념으로 우수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국가기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21세기에도 일진전기는 도전과 창조정신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 유지함은 물론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일류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다.

문의:031-220-0500



가스절연개폐기